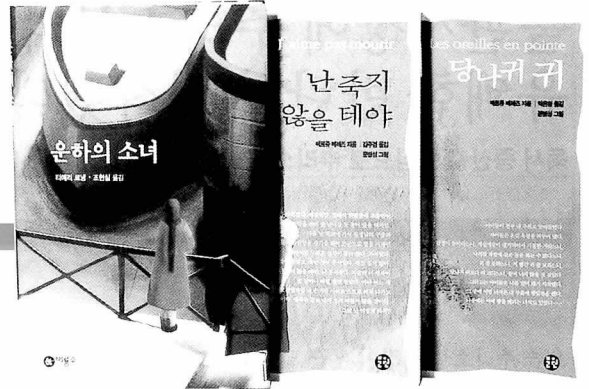


# 주변인의 냉혹한 현실 형상화한 청소년 소설들

학대, 성폭력 등 청소년들의 절망과 희망 다뤄



흔히 청소년들을 가리켜 '주변인'이라고 한다. 주변인은 오랫동안 소속됐던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옮겨졌을 때, 원래 소속된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으면서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이 주변인은 단순히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문화에서도 주변인이다.

독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동화책에선 벗어났지만 아직 성인용 책을 읽기에는 좀 버거운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다. 그러나 막상 서점에 들러보면 이들이 읽을 만한 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형 서점의 청소년 교양 소설 코너에 가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곳에는 장편 동화부터 성인소설까지 진열돼 있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소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소년 대상 도서들이 대부분 인문교양서 위주인데다, 정작 청소년의 현실을 다룬 질 높은 소설들은 찾기 힘들다. 청소년들은 아예 현실을 벗어난 판타지 소설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원과 비룡소에서 최근 출간된 책들 가운데 청소년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문원의 <청소년 화제작 시리즈> 3권과 4권으로 나온 《당나귀 귀》《난 죽지 않을 테야》(이상 켄트루 켄레즈, 박은영), 비룡소의 <청소년 문학선> 4권 《운하의 소녀》(티에리 르냉, 조현실) 등이 그 전면이다.

## 소외된 이동학대의 현장 포착해

《당나귀 귀》《난 죽지 않을 테야》는 프랑스 청소년 소설 작가 켄트루 켄레즈의 삼부작 가운데 두권이다. 3부 《이별처럼》은 곧 출간될 예

정이다. 이 소설은 레이몽이라는 열두살짜리 소년을 등장시켜 소외와 이동 학대의 절망적인 현장을 포착해낸다. 레이몽에게 삶이란 언제나 동네북처럼 매를 맞고 귀를 잡히고, 놀림을 당하는 게 전부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귀를 잡혀 '당나귀 귀'라고 놀림을 당하고, 집에서는 동생이 정박아로 태어난 것이 레이몽 때문이라고 부모에게 매질을 당한다. 《당나귀 귀》에서는 빵집 아저씨가 레이몽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아저씨의 죽음으로 이마저도 좌절되고 만다.

《난 죽지 않을 테야》로 가면 레이몽은 더 심각한 절망의 구렁으로 빠져든다. 레이몽은 가정과 학교에서 받는 학대를 견디지 못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고 급기야 요양시설로 보내진다. 레이몽은 그 요양시설에서 어른들이 개입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상처가 오히려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레이몽은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난 죽지 않을 테야" 하는 말은 레이몽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희망의 메시지다.

《운하의 소녀》의 주인공 역시 열두살이다. 열두살 소녀 사라는 미술학원 선생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다. 하지만 사라는 이런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억압과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쾌락 사이에서 방황한다. 거기에 어릴 적에 성추행당한 경험이 있는 사라의 담임선생이 쓴 일기가 겹쳐진다. 이 일은 담임선생의 도움으로 해결되지만 사라는 쾌락과 고통의 이중적인 내면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담임선생은 "네가 그것을 좋아했더라

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권리는 없다"고 말해준다.

## 다른 세계와 소통하는 법 알려줘

이 소설들의 주인공은 모두 열두살이다. 청소년이라고 보기엔 어린 나이이다. 하지만 학대, 성폭력 등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로 동일시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이 소설들의 의미는 남다르다. 비룡소 서영옥 팀장은 "청소년 시기는 자아중심적 세계를 건너내고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때다. 이 소설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생각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말한다. 또한 이 소설들은 문학성도 뛰어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문학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나 이 소설들이 모두 외국소설인 것은 아쉽다. 이리다 보니 외국의 생경한 문화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국내 청소년 문제를 다룬 만한 역량 있는 필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청소년 소설 출판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1318 문고>로 청소년 소설을 주도해온 사계절이 <청소년문학상>을 제정한 것도 청소년 소설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다.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의 현실로 파고들어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청소년 소설로 형상화해낼 역량 있는 작가들의 탄생을 기대한다. -김장근기자